

조별독서활동지

(5)조

도서명	구성원	일시
전태일 평전	박상희, 이은지, 조예림 민지수, 양세연, 최형균	2019. 04. 16
<내용정리> <p>이 책은 저자 조영래가 수배 중에 전태일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전이다. 전태일이란 인물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로기준법 개혁을 위해 1970년 11월 13일 분신자살을 한 인물이다. 이 책은 일본에서 먼저 출간하고, 이후 1983년 군사독재 중이던 대한민국에서 익명으로 출간하여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전태일은 노동자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의 자긍심과 주체의식을 갖게 하여 인간 해방 운동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평화시장의 노동자 실절과 일하면서 겪었던 고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분노, 그로 인한 투쟁을 하게 되는 과정을 잘 나타내었다.</p>		
<소감> <p>박상희 - 이 책을 통해 전태일이란 인물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얼마 전 tvN의 드라마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보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현실을 보고 마음이 아팠었다. 드라마에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의 개선하기 위해 투쟁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전태일이라는 인물은 현재 나보다도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위해 분신자살까지 마다하지 않은 그의 용기에 마음 속 큰 울림이 있었다.</p>		
<주제 및 문제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당시 열악한 노동 환경 · 군부 독재의 노동자 계급 및 서민들에 대한 억압 · 돈이 없어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그 당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토론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의 노동 개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 전태일의 죽음으로 인해 2019년 노동자들의 환경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 현재 우리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투쟁하고 싸우고 있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